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여수시,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추석 특별 운행

### 23~25일 추가 운행...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서 탑승신청



탑승률 100% 행진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여수남반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추석연휴 특별운행한다.

여수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반영해 23일부터 25일까지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시티투

어와 공연, 이벤트가 접목된 여수시의 특별한 관광상품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국동 여항단지, 여수시청,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 여수의 아경 명소를 돌아보는 2시간 코스의 야간테마 시티투어버스다.

오른탑 2층 버스를 타고 여수반

바다 해안도로를 달리며 아경과 뮤지컬, 버스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데다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열서 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있어 탑승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탑승객은 4월 27일 첫 운행부터 37회차인 9월 1일까지 1598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탑승률은 5개월째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다. 탑승신청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 5000원, 미취학아동 1만 원이다. 여수시민은 50%를 할인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탑승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코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여수의 숨은 명소를 관광객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담양군, 도시재생·문화 예술분야 현안 사업 점검

담양군은 지난 4일 디자인·건축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과 문화예술분야 주요 사업장의 진행상황과 안전성, 예술성, 관광효과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담주대비담예술구 예주 조성사업,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발주예정인 사업이다.

현장점검에는 최형식 군수 외부 전문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감사담당,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사업의 예술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든 시설이 담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암군, 공직자 행복 up 혁신교육 실시

영암군은 군민이 희망인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공직자 행복 UP 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총 6기에 걸쳐 강원도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아이디어 발굴과 동료애와 팀워크를 통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8년 영암군 공직자 행복 UP!'이란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일자 인식전환의 날, 2일자 현장지식 학습의 날, 3일자 군정 아이디어 발굴의 날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테마별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팀원들이 함께 재래시장과 장사어촌체험마을, 강릉커피거리, 양양서퍼비치, 화진포 역사안보박물관, 금강산 자연사 박물관, 외유지향, 정초호 호수공원 등 관광 명소나 동명항 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속초캐이탈라 등 우수시제품을 선별하여 방문, 관광여건과 성공요인을 모색하고, 지역발전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지방소멸, 해답을 찾다' 주제로 영암 미래특강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실시하여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전통영 군수와 대화 시간에는 민선 7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솔한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 해 영암군 공직자 혁신교육은 공직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6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토요 마켓' 개장

### 죽녹원 맞은편서 매주 토요일 농산물 판매 마켓 운영



담양군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토요 마켓을 오는 8일부터 정기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죽녹원 맞은편 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숲맑은'

은 담양 토요 마켓은 9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나와 판매할 뿐만 아니라 시식과 홍보 행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군은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단계 없이 담양 대표 관광지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참여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판매

할 수 있는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철과일, 채소류(버섯, 호박, 은행, 들깨 등), 곡류(쌀, 잡곡류 등) 등으로 한정하며 참가자에게 판매대를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기간 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마켓에 참여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숲맑은 담양 토요 마켓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기는 담양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담양의 우수한 농산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여수시, 청년 근속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 오는 14일까지

여수시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 3년간 120만 원 상당의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청년(만18~39세)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유지금으로 1년차에 200만 원, 2~3년차에 150만 원씩을 받고 청년도 1~2년차에 취업장려금 150만 원씩, 3년차에는 장기근속금으로 400만 원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청년을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300인 미만 여수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간 내 시 일자리정책관실(061-659-362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 후 21일까지 지원기업을 확정해 계획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 기업을 모집해 9월 현재 42개 기업, 102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채용을 늘리고 동시에 장기근무도 유도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담양군, 도시재생·문화 예술분야 현안 사업 점검

담양군은 지난 4일 디자인·건축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과 문화예술분야 주요 사업장의 진행상황과 안전성, 예술성, 관광효과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담주대비담예술구 예주 조성사업,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발주예정인 사업이다.

현장점검에는 최형식 군수 외부 전문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감사담당,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사업의 예술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든 시설이 담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홍보·상담 진행



화순군은 서울, 경기 거주 도시민 대상으로 귀농, 귀촌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3일간 진행된 2018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동아일보와 채널N가 공동 주최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 귀농귀촌 박람회에는 지자체, 농협 등 155개 부스로 운영되었으며, 화순군은 농산물 홍보 부스와 귀농 귀촌 상담 부스 2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홍보와 상담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홍보는 귀농 후 농촌 정착 선배 농업인이 귀농전략 및 상품 소개지역 주요 농산물을 전시하며 시음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321명에게 시음 행사를 진행하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화순군 홍보 책자를 500여부 배부하였다.

또한 귀농 귀촌 상담 부스에서는 관광객 124명(서울 55%, 경기도 40%, 기타 5%)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등을 설명하였고, 1대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이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조석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다양한 귀농 정책으로 귀농하기 좋은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를 위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